

2009년 2월 4일 토론

정현이: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오전에 있었던 강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테마가 ‘관점의 이동과 시간성의 문제’ 라는 것이었는데, 오전에는 시간성,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백남준이 생각하는 시간 혹은 역사를 다시 토론해 보고, 그럼으로써 ‘예술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모더니즘 시대의 마지막 신화 같은 것이었다면, 21세기에는 예술마저 자본에 종속되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이야기하지만 21세기에 예술이 자본주의에 종속된 것이 자명한 일이라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도대체 예술이 무엇이고 백남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요즘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것을 가르치죠. 어떻게 기금신청서를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가 2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가장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미술계에서 평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세미나가 오늘의 미술은 무엇이고 과연 백남준에게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나 히긴스 선생님은 아까 도표 두 개를 비교해 주셨는데,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뉴턴의 도표였고, 하나는 민코프스키의 도표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뉴턴의 역학에 나타난 시공간은 XY좌표의 함수관계죠. 그런데 민코프스키의 도표는 XY식

이 아니라 T가 나타나는 원추형입니다. 이 두 개의 도표를 가지고 모더니즘의 선적 시간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간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백남준의 초기 비디오 작업이라든가 몇몇 비디오 작업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 시간 바깥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미 바깥, 혹은 함성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언어 바깥, 예컨대 모국어가 없는 사람이 의미의 바깥을 해매게 되고 포착이 안 되는 의미의 경계선 위를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도리 야마무라 선생님은 레비나스의 개념을 끌고 오셨습니다. 미도리 선생님은 이 ‘타자성’이 반복성, 집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타자의 고통을 통해서, 타자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타자의 고통에 공감함을 함으로써 자아, 주체의 타자성이 자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오후의 두 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식민지 언어의 고통, 혹은 식민지 체험, 식민지 청년의 모순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수기 선생님이 식민지 지식인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당시의 상황을 짚어 주셨죠.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우어마이스터 선생님은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발표자들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술은 조기경보 시스템이고 그 당시에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왔든, 부잣집에서 왔든, 우리가 독일에서 가난했든 간에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남준이 기여한 바는 철학적 테러리즘에 불교를 삽입한 것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았지만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함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성방송,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서부터 시작된 백남준에 대한 의심과 의혹의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모국을 잃

어버린 사람의 언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프전 때 제가 미국에서 백남준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가 “21세기 미술에서는 불가리아가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가리아가 ETPS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합니다. 저는 ETPS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니, 그게 텔레파시라고 하더군요. 불가리아가 텔레파시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최고가 될 것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술은 무엇인가?” 와 소통 가능성, 즉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정말 계속 미끄러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술이 아직도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소통의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지점에서 텔레파시라는 말도 쓰셨고, 그토록 위성아트에 매료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성호 선생님과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함성호 선생님이 백남준 선생님의 특징은 그가 모국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아가 없고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한국에서의 식민지적 상황에서는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테러리스트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현장에 같이 계셨던 바우어마이스터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백남준 선생님은 지금은 돌아가셨고 감동만이 남아 있는데, 실제 살아 계셨으면 직접 함성호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쭙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긍정적이다’ 혹은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아마도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 공통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리고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적인 특성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흡수하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망하는 모습이나 화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화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저항을 하거나 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반대의 것을 키우면 그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에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을 포용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뭔가,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할 때 반응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가만히 침묵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언어의 사이에 있었고 고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꿈을 꿀 때 악몽을 꾸면 그 악몽에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자기 자신을 알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의 꿈속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남준은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정현이:예, 감사합니다. 함성호 선생님, 혹시 바우어마이스터 선생님께 질문이나 코멘트하실 것이 있습니까?

함성호:아니오, 없습니다.

정현이: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함성호 선생님 강의에서도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김수기 선생님도 이상을 언급하셨는데요, 이상이라는 아방가르드 시인도 결국은 일본에서 투옥되었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상이 마지막에 죽을 때 먹고 싶어 했던 것이 레몬 아니면 멜론이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멜론이든 레몬이든 그것은 상당히 이국적인 과일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아주 향기 좋은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국에 대한, 특히 향기에 대한 욕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 새것,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굉장한 갈망 같은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대, 식민지 시대의 우리 지식인들의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상에 대해서도 백남준과 같은 잣대를 적용시키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함성호: 이상에게 잣대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 잣대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백남준보다 이상이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은 분명히 서양 건축사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동양 건축사에 관해서 정리된 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건축을 공부했다면 반드시 서양 건축, 혹은 일본 건축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상이 건축을 공부했던 영향은 시에서도 많이 나타나지요. 점들이 좌우 줄을 맞추어 10개씩 찍힌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나타난 것은 분명히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평면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인 거죠. 유적의 동그란 기둥은 100개입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요. 서양 건축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막강한 호기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예술가가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를 깨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남준은 그런 막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남준은 떠돌고 싶을 때 떠도는 영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백남준은 분명히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것이고,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상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인 거죠. 어디 떠돌고 싶어도 떠돌지 못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정현이:우리가 그 시대의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예술가들은 어떤 언어로 말합니까? 즉,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모국어입니까? 우리가 서양을 받아들인다거나 교류한다고 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넘어섭니다. 이것은 제가 미도리 야마무라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요, 미도리 선생님이 아까 존재의 복수성이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타자성이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을 타자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타자는 나쁜 타자였지만, 결국 그 타자는 나를 넘어서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하기는 쉽죠. 그럼 작가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함성호:저는 비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단일어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국 분들 모두 한자와 순수 우리말, 그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갖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한자라는 세계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15,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문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논문을 썼다면, 그 논문을 가지고 중국의 한자와 교류를 하고 사신도 왕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세계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전에 접근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고전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고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한자로 되어 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예부흥, 르네상스라는 것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무슨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와 한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명백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현실뿐만이 아닙니다. 영어도 그렇고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계화되다 보면 언어의 잡종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철학하시는 분들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 설명할 때는 독일어, 저 개념 설명할 때는 프랑스어, 온갖 잡종 언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정현이: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려면, 예술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견해의 차이를 흑과 백으로 나누고, 어떤 편이 되고…….

함성호: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난 이 언어, 넌 저 언어가 아니라, 각각의 언어의 차이에 주목해서 우리가 언어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미도리 야마무라 씨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도리 야마무라:사회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들은 다 하이브리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나라 시대부터 조선의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혼합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하이브리드 상태가 아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타인성이 아니라 무한성에 대한 것이었고 독재적인 사회, 전체주의에서 나온 무한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모더니즘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레비나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미국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의 독재, 전체주의 사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의미와 주관성을 손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가 이야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지만, 특히 2차대전 직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타인성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적인 경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이:저는 사실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성과 무한성*은 하이데거 철학의 전체성을 비판한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히긴스 선생님은 과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즉, “모더니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나 히긴스: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레비나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적 시대의 불안감에 대한 무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

로 역사적인 흐름의 특징 자체가 현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아방가르드적인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도리 박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들으면서 하게 된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20세기를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대라고 정의한다면, 언어의 전환, 즉 언어가 파괴되고 역사적 흐름이 파괴화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 이론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언어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모국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 원천적인 의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하이브리드화의 논리, 언어의 논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 논리는 전쟁의 경험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대전에 실제로 참여했던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죠. 저는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책은 미도리씨가 이야기 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산스크리트어나 오래된 고대 언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의 언어의 미묘함도 알 것 같습니다. 미래 언어가 나타나면 새로운 뉴미디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 손자들이 핸드폰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언어인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글로벌 언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스크리트 언어를 공부하듯이 새로운 언어 간의 미묘함도 보전되어서 나중에는 그런 언어들을 후대 학자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파틱(telepathic) 이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프리 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언어로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기는 하지만, 뉴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이: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을 더 받아 보죠.

바존 브락:함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백남준은 스스로에 대해서 도망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난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굉장히 많은 난민이 있었습니다. 동유럽과 동독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죠. 난민이 느끼는 고향이 없다는 느낌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탈출했다는 것으로부터 어떤 풍부함이 나타날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면 탈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탈출로부터 뭔가 풍부함을 얻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았겠습니까? 백남준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였죠. 물론 친일파가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백남준은 친일파 출신 가정의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한국사람은 한국으로, 중국사람은 중국으로, 일본사람은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즉 계속 자기의 뿌리를 따라 올라간다면 역사의 흐름은 거꾸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들 동아프리카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전 세계 35억 명이 다 동아프리카 출신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백남준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동아프리카로 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 백남준에게 끼친 주된 영향은 바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사상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일본을 받아들임으로써 뿌리로 돌아간다는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대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이:예, 지금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것이 있습니까?

함성호: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고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옛 인물들 중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섬 같은 곳으로 쫓아 버리는 것입

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가서도 계속 약초를 가꾸고, 밭을 가꾸고,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할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유배 온 주제에,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채소를 가꾸느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어디든지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죠.

정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어디든지 내 자리라고 느낄 수도 있고, 집에 있어도 뿌리 뽑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독일에서는 동독이 무너지면서 굉장한 좌절을 느꼈다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1980년대 좌파 지식인 청년들이 뭔가 뿌리 뽑힌 느낌, 집을 잃어버린 느낌을 혹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함성호: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서나 다 고향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가장 강한 사람은 고향을 타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이: 예, 이제 다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이 사회를 비판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모두 1, 2분씩 코멘트를 부탁 드립니다. 김수기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기: 아까 제가 고백처럼 이야기한 것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백 선생님을 재발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백 선생님이 방송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보고 “내가 그동안 굉장히 잘못 봤던 것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제가 제대로 보게 된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상황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업화의 속도가 정말로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급속화되었습니다. 반면 백 선생님께

게는 지금 보아도 너무나 귀감이 될 만한 치열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모델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현이:이제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질문이지만 사실 계속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함성호: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예술이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바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평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이:마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예, 제가 너무나 코멘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짧막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의식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깨어나라”, “잠들지 말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 히긴스:네, 마리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첨언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백남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마리가 로봇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인간적인 이해, 또 인간화시키는 것을 어떤 기술과 접목시키는 것일까요. 마셜 맥루언 등은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특히 백남준의 초기 작품에서는 뭔가 인간적인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즉, 기술에서 휴머니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백남준 예술의 본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마리가 이야기했던 백남준의 본질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미도리 야마무라:저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욕에서도 예술과 돈의 관계가 너무나도 긴밀해지고 있고, 예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해서 읽고 예술에 대해서 배우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에서 백남준 선생이 현대의 예술가들보다 훨씬 앞서 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현이: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입춘이라고,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백남준의 선물’이라는 국제 발표회를 열고, 예술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었던 날이 봄으로 시작되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영철 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철:오늘이 마침 입춘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1월 1일부터 새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정부터 새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입춘이 되어야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백남준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합나다만, 사실 백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내일 계속될 세미나에서도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 드리자면, 오늘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시간성, 역사적 맥락, 식민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초기를 다루다 보니 한국을 떠나기 전의 상황과 백남준 선생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세미나를 한다면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한국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가장 가려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1950년에 한국을 떠난 후 34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4년 만에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 땅을 밟았을 때는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 예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흘러가면서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비평적인 토론의 여지가 아주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다 보내고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가 와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아트에 대해 논의를 하고, 매우 복잡하면서도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백남준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앤디 워홀은 자본주의 시대에 복제 예술의 가능성을 열면서 “차라리 내가 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발표 중에도 달과 원심력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남준 선생님

은 참 재미있게도 태생부터 달과 굉장히 인연이 깊었던 분 같아요. “달은 최초의 힘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문, 지리를 아주 박식하게 공부하신 분께서 백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의 항성의 배치도가 물고기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함성호 선생님도 아트와 커뮤니케이션이 겹쳐지는, 두 개의 원이 겹쳐지는 사과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물고기 부레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백 선생님은 비디오 아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트와 커뮤니케이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마르셀 뒤샹을 뛰어넘었다.” 고 과감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풀어 가야 할 하나의 화두로 던져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앤디 워홀이 복제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이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다.” 고 말했다면, 백 선생님의 경우에는 “내가 인공위성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것,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달입니다. 그렇죠? 달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휴식을 주고, 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저 달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백 선생님은 그러한 dreamer로서 예술을 시작했고, 인공위성 시대에는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테크놀로지를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백 선생님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고요. 사실은 간접적인 관계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다른 커뮤니케이션, 예컨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멀리서 접하면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사실 백 선생님이 아주 유명해지고 나서 34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 시장은 백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죠. 그 세월이 약 20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선 한국의 메인스트림 미술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1993년도에 휘트니가 한국에 왔을 당시 백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휘트니비엔날레가 한국에서 열렸죠. 외국의 비엔날레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리스트와 좌파 민족주의가 항상 대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좌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미국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를 담은 비엔날레가 오는 것에 있어서 참고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 선생님이 그 일을 뒤에서 도왔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의 비엔날레가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문화적인 식민지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라

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 선생님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백 선생님은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적으로 부상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만들어질 때, 사실은 백 선생님의 큰 도움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